

食糧資源의 國際價格動向

李 永 洙

(韓國產業研究所)

概 況

77년 前半에 상당한 상승폭을 나타냈던 國際商品價格指數가 下半期로 접어들면서 상승기세가 꺾이기 시작, 이러한 하락 추세는 79년 年初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下落은 최근 2~3년 동안 農作物의 豐作으로 인하여 農産物 價格의 하락이 현저해지는데다, 先進國들의 景氣不振으로 工産品 및 一次 鑛物資源에 대한 需要가 대체로 不振한 때문이었다.

食糧資源

小麥, 옥수수·大豆·原糖 등 주요 식량 자원은 지난해 年初 상당한 가격 상승을 보였으나 세계적인 穀物豐作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곡물 가격은 年中 下落勢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年末에 가까워지면서 소련·中共 등 共產圈에서 凶作으로 인하여 自由 世界로부터 곡물 購買가 늘어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農産物 價格은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78년 年初에 접어들면서 모든 農作物의 收穫量 增加, 在庫累增 등의 보도에 영향을 받아 곡물 가격은 대체로 弱勢에 놓여 있다.

Western Wheat誌의 보도에 의하면 77/78 穀物年度 美國의 大豆 生産량은 4,850만t에 달해 前年度의 3,450만t에 비해 32% 늘어나게 될 것이라 한다.

또한 지난 해의 大豆 재고량이 290만t이나 있어 금년도 大豆 總 供給량은 4,869만t으로 前年 總 供給량에 비해 18%가 더 늘어날 것이라 하며 이로 인해 금년도에 大豆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大豆 市場은 供給

과잉 현상을 빚게 될 것이며, 가격도 暴落暴騰勢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美國의 農民들은 어느 穀物을 심어야 많은 利得을 볼 것인가에 따라 播種穀物을 선택하고 있다.

美國의 民間 관측자들은 政府側에서 飼料穀物의 경작면적 감축 명령에다 불구하고 금년에 大豆 수확량은 그 어느해 보다 많을 것이며 價格도 크게 下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大豆의 부셴當 가격은 옥수수 부셴當 가격 보다 2.5배가 되며 原棉 파운드當 가격 보다 10배나 높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또한 大豆 경작에는 肥料가 많이 들지 않아 한 에이커의 大豆를 재배하는 데는 옥수수 한 에이커를 경작하는 것 보다 40%의 經費가 적게 들며 棉花 재배 보다는 72%나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관측자들은 금년도 美國 大豆의 경작 면적은 약 6천 3백만 에이커로 77년의 5,930만 에이커 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棉花 耕作者들은 면화 재배 면적을 종전 1,340만 에이커에서 1천 2백만 에이커로 감축시킬 것이며 이 면적은 주로 大豆 재배로 전환 될것이라 한다.

그런데 Texas 平原의 棉花 재배자들은 大豆재배보다 차라리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수수를 재배할 것이라 한다.

이러하여 美國의 수수 경작 면적은 약 14%가 늘어나 수수 재배 면적은 840만 에이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시카고 先物 市場에서 옥수수 가격은 높은 편이나, 금년도에 옥수수 생산량이 워낙 풍성했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

지난해 美國 옥수수 수확량은 63억 7천만

부셴로 기록적인 수확을 올린 76년 보다 2%가 더 늘어난 실적을 올렸다.

카터 行政府는 옥수수 豐作에 의한 價格 下落을 방지하기 위해 옥수수 및 飼料作物 경작 면적을 10% 감축할 예정이라 한다.

國際小麥委員會(IWC)는 77年度 세계소맥 생산량은 3억 8,860만t으로 76년 생산량 4억 1,770만t보다는 下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同委員會에 따르면 또한 77년도 세계 粗穀 總 生産量은 6억 8,500만t으로 76년의 기록적 생산량 6억 9천만을 약간 하회할 것이라 한다.

77/78年度 세계 소맥 교역량은 6,971만t으로 지난해의 6,130만t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小麥在庫 移越量도 5,160만t으로 前年の 5,430만t보다 감소될 전망이다이라 한다.

小麥理事會의 소맥 생산 예상량이 축소된 이유는 주요 소맥 생산국인 캐나다의 소맥 생산량이 76년 2,360만t에서 금년에는 1,970만t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이며, 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等地에서도 소맥 생산량의 종전의 수확 예상량을 下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련의 소맥 생산은 작년도의 9,690만에 비해 약간 줄어든 9천t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美國의 소맥 생산량은 76년 5,830만t보다 약간 감소된 5,510만t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EC의 소맥 수확량은 지난해가 3,920만t이었는데 금년에는 3,860만t이었다.

國際小麥委員會는 78년도 美國의 소맥 수확 전망은 좋은 편이라고 예측했다.

대부분의 西유럽 諸國은 지난해 12월 冬小麥播種을 완전히 끝냈다.

지난해 年末 기후가 순조로운 편이어서 소련은 3,690만ha에 冬소맥을 파종했는데, 소련은 78년도 곡물 수확량을 2억 2천만t으로 잡고 있다. 여하튼 현재 小麥의 國際價格은 7년 한해를 두고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77년 소맥의 생산량이 76년 소맥의 생산량과 거의 비슷한水準이므로 78년도 소맥 가격은 年初價格인 270~280 ㄱ線을 중심으로 하여 변동할 전망이다.

지난해 原糖價格은 다른 어느 農作物에 비하여 下落勢가 심했다.

해마다 原糖 생산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在車量도 漸增하고 있다.

國際原糖 관계 전문가에 의하면 77/78年度 세계 원당 재고량은 3,200만t에 달할 것이라 하며 76/77年度末 원당 재고량은 2,603만t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전문가에 의하면 77/78년도 세계 원당 생산량은 9,260만t으로 소비량 8,500~8,600만t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 한다.

新國際原糖協定이 금년 1월 1일에 發效 됐다. 이 협정에는 加盟輸出國이 전부 합하여 年間 1,590만t(粗糖 기준)의 수출 할당량을 설정, 시세 수준에 따라 기준 할당량의 몇 %를 수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市況의 改善과 時勢安定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77년도 原糖 업계의 추세는 생산·재고·소비 등 모두가 확대되었으나 價格만이 하락 추세였다.

78년에도 생산, 재고, 소비가 증가할 것이며, 價格도 新 原糖協定에 따라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다 더 균형 잡힌 需給이 이루어질 것으로 적망되고 있다.

지난해 쌀풍년으로 우리나라에 선 그동안 금지됐던 쌀막걸리 제조를 허용하기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쌀생산량이 누적되어 묵은 쌀 소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日本에서는 쌀을 가공 변화시켜 여러가지 식품을 만들어 내는 企業體의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玄米로 만든 코오피, 쥬우스, 면류 등 여러가지 食品이 선을 보여 수요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

최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食糧廳에서는 잔뜩 밀려오는 쌀소비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쌀가루, 면류, 크래커, 玄米 코오피 등 쌀을 이용한 新製品의 진기한 商品들이 속속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 쌀을 이용한 쥬우스 등 加工方法의 개발로 시험이 계속되고 소비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개발식품에 의한 消費量의 증가는 아직은 적은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 商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쌀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救世主」의 출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日本 食糧廳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在庫米는 3백 60만톤으로 연이은 豐作에 「제 2차·과잉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남아도는 쌀의 利用을 유도하기 위해 각 기업체에 쌀을 이용

된 玄米코오피는 玄米를 볶아 만든 것으로 분말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인스턴트코오피색과 비슷한 이 현미코오피는 더운물을 부으면 확산, 엉켜붙지 않는 것이 요체가 되고 있다. 試飲者의 말에 따르면 이 현미코오피의 맛은 코오피와 홍차의 중간맛을 내고 있다는 것.

이는 東京에서도 곧 시판하게 되리라 한다.

이밖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연구 개발품으로는 쌀쥬우스.

한 발효균류 연구자는 糖化 효소로 감미로운 쥬우스를 만들었다. 즉 쌀에 발효균을 집어 넣어 발효시킨 것으로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으며 당도는 30도 이상으로 파인맛을 낸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쌀을 원료로 하고 있는 식품은 30여종에 이르고 있다.

쌀 코오피, 쌀 쥬우스 登場

日本, 묵은쌀 消費하려 국수도 만들어

한 상품개발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酒造會社에서는 작년들어서 입에 맞는 좋은 와인風(포도주류)의 清酒를 개발, 시판을 시작했다.

또 보릿가루에 쌀가루를 혼합시킨 국수도 전국각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삶은 쌀을 병동시킨 것도 팔고 있다.

「오오사카」의 食品會社에서 만